

2017서울시7급 A책형(영보이 국어 해설)

- 영보이 저서 -

- ◆ 2018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 201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8/18 출간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블로그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한자뿐만 아니라, 고사성어도 이번 서울시 7급 적중했습니다.

* "영보이 공무원 한자"교재만 적중한 문제

兩寡分悲(양과분비): 같은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同情)함 (영보이 한자 교재 p.42, 54, 58, 83, 101, 149, 254, 258, 260, 270, 278, 296)

白雲孤飛(백운고비): 타향(他鄉)에서 고향(故鄉)에 계신 부모를 생각함. (영보이 한자 교재 p.142, 294)

★ 兩寡分悲(양과분비)와 白雲孤飛(백운고비)는 아마 "영보이 한자" 교재에서만 나왔을 겁니다. 맞죠? ^^

어쨌든 2017서울시7급 국어 해설 올려드립니다. 영보이 해설은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

◆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1)

<보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다.

④ 어느덧 벚꽃이 다 지는구려. -하오체

◆ -구려: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하오체이다.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하오체: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으로,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빨리 인도로 나오시오.’, ‘왜 꾸물거리시오?’ 따위이다.

정답: ④

◆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3)

- 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
- ②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 ③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 ④ 이틀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

★ 터: ((어미 ‘-을’ 뒤에 쓰여))‘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A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B

◆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 - B

- 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 - A
- ②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 B
- ③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 B
- ④ 이틀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 - B

◆ ②, ③, ④의 ‘터’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답: ①

◆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4)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데,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쳐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뒤뚱 지게목발 따로 놓고, 삽질이며 팽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 쓰기는 더 쓰는데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도구 부서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겹주기라... 뼈빠지게 일한다고 뼈빠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

- ① 4 . 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② 3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한다.

- ③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으며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 ④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서정인의 ‘달궁’(1985):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발표된 연작장편 소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교체 서술하는 등 자유롭게 시점을 이동함. 배경은 서울과 전라북도. 소설의 주인공 인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삶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① 4 . 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위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4·4조의 율격과 4음보를 활용하였고, ‘ ~ 지어 보는디, ~ 힘 쓰기는 더 쓰는디 ~ 다 망친다.’로 보아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 3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한다. (X) → 3음보가 아니라 **4음보**를 사용하였다. / ◆ **4음보** < 뼈에 붙은 / 농사일이 / 서툰 사람 / 먼저 알고 > < 사흘거리 / 잔상쳐요 / 닳새마다 / 몸살이라, > < 지게 지면 / 뒤뚱뒤뚱 / 지게목발 / 따로 놓고, > < 샅질이며 / 팽이질에 / 도리깨질 / 쟁기질이 >

③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으며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 ‘ 지어 보는디, ~ 잔상쳐요 닳새마다 몸살이라, ~ 겁주기라... ~ 망친다.’로 보아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으며 ‘고향집, 농사일, 지게, 샅질, 팽이질, 도리깨질, 쟁기질, 논밭 두렁’ 등으로 보아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④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 보는디, ~ 힘 쓰기는 더 쓰는디 ~ 망친다.’로 보아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낸다. 정답: ②

◆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5)

합리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공동체의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존중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사려 깊게 논증한다면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생각을 인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논증이 일관되고 견고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이 깊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 ①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 ② 합리적 사고의 의미
- ③ 인간의 사회적 특성 ④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

①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 (X) → ‘합리적 공동체’란 문구가 나타나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더구나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② 합리적 사고의 의미 (X) → 합리적 사고의 뜻을 설명한 글이 아니다.

③ 인간의 사회적 특성 (X) →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언급은 했으나 중심 내용이 아니

다.

④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 (O)

◆ ' ~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 최소한 존중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사려 깊게 논증한다면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생각을 인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논증이 일관되고 견고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이 깊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다.'로 보아 합리적 논증이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답: ④

◆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6)

-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군세다, 날뛰다
- ②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
-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머다, 고프다
- ④ 맨손, 군소리, 풋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군세다, 날뛰다 - 모두 합성어

◆ 손목(통사적 합성어), 눈물(통사적 합성어), 할미꽃(통사적 합성어), 어깨동무(통사적 합성어), 군세다(비통사적 합성어 - 연결어미 '고'가 없으므로), 날뛰다(비통사적 합성어 - 연결어미 '고'가 없으므로)

② 잠보, 점쟁이, 일꾼, 덮개, 넓이, 조용히 - 모두 파생어

◆ 잠보(접미사 '보'가 붙어 파생어), 점쟁이(접미사 '쟁이'가 붙어 파생어), 일꾼(접미사 '꾼'가 붙어 파생어), 덮개(명사화 접미사 '개'가 붙어 파생어), 넓이(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어), 조용히(부사화 접미사 '히'가 붙어 파생어)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머다, 고프다 - 모두 파생어

◆ 지붕(접미사 '붕'이 붙어 파생어 /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일어로 등재), 군것질(접두사 '군'과 접미사 '질'이 붙어 파생어), 선생님(접미사 '님'이 붙어 파생어), 먹히다(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파생어), 거머다(접사 '머'가 붙어 파생어), 고프다(접미사 '브'가 붙어 파생어)

④ 맨손, 군소리, 풋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 모두 파생어

◆ 맨손(접두사 '맨'이 붙어 파생어), 군소리(접두사 '군'이 붙어 파생어), 풋사랑(접두사 '풋'이 붙어 파생어), 시누이(접두사 '시'가 붙어 파생어), 빗나가다(접두사 '빗'이 붙어 파생어), 새파랗다(접두사 '새'이 붙어 파생어) 정답: ①

◆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7)

<보기>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① 늦었으니 어서 자. ② 여기 잠깐만 서서 기다려.
- ③ 조금만 천천히 가자. ④ 일단 가 보면 알 수 있겠지.

· 돌 등물이 다 모였더라.

- ① 연설을 서사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 ②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으로서, 우화적 풍자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④ 표면적으로 동물들이 인류의 부패와 타락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시기 사회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융희 2년(1908)에 안국선이 지은 신소설.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간의 추악한 면과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매 금지 소설이다.

- ① 연설을 서사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X) →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②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으로서, 우화적 풍자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X) → 해방 직후가 아니라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개화기 작품으로 1908년에 지은 신소설이다.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X)
→ 인간의 추악한 면과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하였으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 ④ 표면적으로 동물들이 인류의 부패와 타락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시기 사회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추악한 면과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하였다. 정답: ④

◆ 다음 시가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 10)

인심이 늦 곳투야 보도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옛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꺾장 거후로니 무옴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 언저 풍입송 이아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저 브려세라

- ①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② 10구체의 경우 당대의 귀족,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노래하였다.
- ③ 조선 후기의 시정(市井)에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꾼에 의해 가창된 노래이다.
- ④ 시조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 정철의 '성산별곡': 조선 명종 15년(1560)에 정철이 지은 가사(歌辭).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성산의 풍경과, 서하당(棲霞堂)과 식영정(息影亭)을 중심으로 한 사계

절의 변화를 읊으면서 그 누각을 세운 김성원의 풍류를 칭송한 노래이다.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①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X) → ‘악장’에 대한 설명이다.

◆ **악장(樂章)**: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 나라의 제전(祭典)이나 연례(宴禮)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으며, 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였다. <용비어천가>, <문덕곡>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② 10구체의 경우 당대의 귀족,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노래하였다. (X) → ‘향가’에 대한 설명이다.

◆ **향가(鄕歌)**: 향찰(鄕札)로 기록한 신라 때의 노래. 민요적·불교적인 내용으로, 작가층은 승려·귀족·평민에 걸쳐 다양하다.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로 모두 25수가 전한다.

③ 조선 후기의 시정(市井)에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꾼에 의해 가창된 노래이다. (X) ‘잡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시조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O) - ‘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가사(歌辭)**: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律文)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것을 정격(正格),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정답: ④

◆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11)

- <보기> ㉠ 太子 | 道理 일우샤 조개 慈悲호라 하시느니 《석보상절》
㉡ 그 後로 人間엿 차바는 뼈 문 좌시며 《월인석보》
㉢ 섬 안해 자실 제 한비 사오리로디 뷔어샤 조므니이다 《용비어천가》
㉣ 곶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를 머그리도 이시며 《석보상절》

① ㉠의 ‘조가’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② ㉡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③ ㉢의 ‘자실’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④ ㉣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① ㉠의 ‘조가’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O) ◆ 현대 국어에서 재귀대명사로 ‘저, 자기, 당신’ 등이 있지만 15세기에는 ‘자기’를 ‘조가’로 썼다. ‘太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재귀대명사 ‘조가’를 쓴 것이다. 따라서 ‘조가’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② ㉡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O) ◆ ‘좌시다’는 ‘자시다’의 옛말로 ‘먹다’의 높임말이다.

③ ㉔의 '자실'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O) < (태조께서) 섬(위화도) 안에 자실(목으실) 제 큰비가 사흘이나 내리다가 (태조께서) (섬을) 비우고서야(떠나고서야) (섬이 물에) 잠기었습니다. >

④ ㉔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X) → < '꽃과 과실과 풀과 나무를 먹을 사람도 있다'로 풀이된다. '이시다'는 '있다'의 옛말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시며'는 '먹을 사람'을 높이는 말이 아니다.

정답: ④

◆ **석보상절**(釋譜詳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수양 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소헌 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쓴 책으로 세종 29년에서 3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라 도선의 《석가씨보(釋迦氏譜)》, 양나라 승우(僧祐)의 《석가보(釋迦譜)》, 법화경,地藏경(地藏經), 아미타경, 약사경 따위에서 뽑아 한글로 풀이한 석가모니의 일대기로, 조선 초기 국어 국문학의 귀중한 자료이다. 7책. 보물 제523호.

◆ **월인석보**(月印釋譜): 조선 세조 5년(1459)에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책.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은 본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을 주석(註釋)하는 식으로 편찬하였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조선 세종 27년(1445)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어 세종 29년(1447)에 간행한 악장의 하나.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으로, 조선을 세우기까지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의 사적(事跡)을 중국 고사(古事)에 비유하여 그 공덕을 기리어 지은 노래이다. 각 사적의 기술에 앞서 우리말 노래를 먼저 싣고 그에 대한 한역시를 뒤에 붙였다. 125장. 10권 5책.

◆ 다음 시들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12)

- ㉠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 ㉡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 꺾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꺾데기는 가라.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 김소월의 '산유화': 1924.1월에 발표 <산에 피고 지는 꽃을 소재로 하여 삶과 자연

모두에 스며 있는 근원적 고통을 노래한 작품이다. > ----- 1920년대
 ㉠ - 백석의 '여승': 1936년에 발표 < 시인의 눈에는 여승이 불교에 귀의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서글픈 모습을 보인다. > -----1930년대
 ㉡ - 김수영의 '눈': 1956년에 발표 < 눈을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로 표현하였다. >
 -----1950년대
 ㉢ -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1967년에 발표 <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의미 있는 사건들 가운데서 허위적인 것이나 겉치레는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만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 -----1970년대

정답: ㉢

◆ 다음 중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7서울시7 A책형 문13)

- ① 發送 - 郵送
- ② 供給 - 需要
- ③ 脫退 - 加入
- ④ 惡化 - 好轉

◆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7 A책형 문13)

① 發送 - 郵送 (유의어)
 1)發送(발송): 發(필 받) 送(보낼 송)
 a)의미: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手段)을 이용하여 보냄.
 ◆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手段)을 이용하여 보냄'을 가리키는 '發送(발송)'은 '發(필 받) 送(보낼 송)'을 쓰는데, '發(필 받)'은 그 자체로 쓰고 '送(보낼 송)'에는 '辶(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집배원은 **쉬엄쉬엄 가다가**(辶: 쉬엄쉬엄 갈 착) 편지를 **發送(발송)**하였다.

2)郵送(우송): 郵(우편 우) 送(보낼 송)
 a)의미: 우편으로 보냄.
 ◆ '편으로 보냄'을 가리키는 郵送(우송)은 '郵(우편 우) 送(보낼 송)'을 쓰는데, '郵(우편 우)'에는 '阝(언덕 부)'가 들어가고 '送(보낼 송)'에는 '辶(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쉬엄쉬엄 가다가**(辶: 쉬엄쉬엄 갈 착) 보니 어느새 **언덕**(阝: 언덕 부)에 다다라 서둘러 편지를 **郵送(우송)**하였다.

② 供給 - 需要 (반의어)
 1)供給(공급): 供(이바지할 공) 給(줄 급). 발음: [공:급][긴소리]
 a)의미: 요구(要求)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提供)함.
 ◆ '요구(要求)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提供)함'을 가리키는 供給(공급)은 '供(이바지할 공) 給(줄 급)'을 쓰는데, '供(이바지할 공)'에는 '亻(사람 인)'이 들어가고 '給(줄 급)'에는 '廾(합할 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마을 **사람들이**(亻: 사람 인) 각출(釀出)한 돈을 **합하여**(廾: 합할 합)

供給(공급)하였다.

2)需要(수요): 需(쓰일 수/쓸 수, 연합 연) 要(요긴할 요)

a)의미: 어떤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을 일정한 가격(價格)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需要(수요)는 ‘需(쓰일 수/쓸 수, 연합 연) 要(요긴할 요)’를 쓰는데, ‘需(쓰일 수/쓸 수)’에는 ‘雨(비 우)’가 들어가고 ‘要(요긴할 요)’에는 ‘女(여자 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여자들이**(女: 여자 여) 좋아하는 비(雨: 비 우) 대비용 장화의 需要(수요)가 급증(急增)하였다.

③ 脫退 - 加入 (반의어)

1)脫退(탈퇴): 脫(벗을 탈, 기뻐할 태) 退(물러날 퇴)

a)의미: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關係)를 끊고 물러남.

◆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을 가리키는 脫退(탈퇴)는 ‘脫(벗을 탈, 기뻐할 태) 退(물러날 퇴)’를 쓰는데, ‘脫(벗을 탈, 기뻐할 태)’에는 ‘月(달 월)’이 들어가고 ‘退(물러날 퇴)’에는 ‘乚(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쉬엄쉬엄 가던**(乚: 쉬엄쉬엄 갈 착) 회원들이 **월요일**(月: 달 월)에 갑자기 조직을 脫退(탈퇴)하였다.

2)加入(가입): 加(더할 가) 入(들 입)

a)의미: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감.

◆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감’을 가리키는 加入(가입)은 ‘加(더할 가) 入(들 입)’을 쓰는데, ‘加(더할 가)’에는 ‘力(힘 력)’이 들어가고 ‘入(들 입)’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학생들은 그 가수의 팬클럽에 加入(가입)하려고 **힘**(力: 힘 력)을 쓰며 철문을 부수고 **들어왔다**(入: 들 입).

④ 惡化 - 好轉 (반의어)

1)惡化(악화): 惡(악할 악, 미워할 오) 化(될 화, 잘못 와)

a)의미: 일의 형세(形勢)가 나쁜 쪽으로 바뀐. / 병의 증세(症勢)가 나빠짐.

◆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뀐’을 가리키는 惡化(악화)는 ‘惡(악할 악) 化(될 화)’를 쓰는데, ‘惡(악할 악)’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가고 ‘化(될 화)’는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마음**(心: 마음 심)이 고약한 놀부의 병세(病勢)가 惡化(악화)되었다.

2)好轉(호전): 好(좋을 호) 轉(구를 전). 발음: [호:전](긴소리)

a)의미: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뀐. / 병의 증세가 나아짐.

◆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뀐’을 가리키는 好轉(호전)은 ‘好(좋을 호) 轉(구를 전)’을 쓰는데, ‘好(좋을 호)’ 그 자체로 쓰고 ‘轉(구를 전)’에는 ‘車(수레 차/거)’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수레**(車: 수레 차/거)를 만드는 장인들의 병세가 매우 **좋아질**(好: 좋을 호) 만큼 **好轉**(호전)되었다. ◆ 정답: ①

◆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14)

① 독도: Dokdo

② 불국사: Bulguksa

③ 극락전: Geukrakjeon

④ 축석루: Chokseongnu

- ① 독도: Dokdo (O) ◆ 발음은 [독또]이지만 된소리현상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dd'가 아니라 'd'가 옳다. 또한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으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 ② 불국사: Bulguksa (O) ◆ 발음은 [불국싸]이지만 된소리현상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ss'가 아니라 's'가 옳다.
- ③ 극락전: Geukrakjeon (X) → Geungnakjeon
 ◆ 로마자 표기법은 자음동화 현상은 반영하고 된소리현상은 반영하지 않는다.
 ● 발음은 [궁낙쩨][ㅇㄴ]이므로 [궁]의 'ㅇ'과 'ㄴ'을 반영하고 된소리 [쩨]의 'ㅈ'은 반영하지 않는다.
- ④ 축석루: Chokseongnu (O) ◆ 발음은 [축썩누][ㅇㄴ]이므로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ㅇㄴ]만 반영하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정답: ③

◆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 15)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병역이나 죄수 심문을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맡길 때, 부모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할 때, 콩팥을 공개시장에서 사고팔 때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예는 많다.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포상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만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 ①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②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④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 ①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X) →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로 보아 시장 친화적 사고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과 무관한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②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O) ◆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로 보아 사회적 행위는 시장 친화적 사고가 아닌 비시장적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X)

→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없다.

④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X)

→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로 보아 이 글의 주장과는 반대로 쓰였다.

정답: ②

◆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16)

-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ㅃ, ㅆ 이 실제로 존재했다.
-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X) → 언문일치는 '서유견문'(1895)을 쓴 유길준이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언문일치가 점차 시도되다가 김동인이 지은 '약한 자의 슬픔'(1919)에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초이다.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O)

◆ 시상법: 시상법은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근대국어는 시상법에서 '-앗- / -엇-'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 '앗'은 과거 시제 '았'의 옛말이고 '엇'은 과거 시제 '엇'의 옛말이다. >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ㅃ, ㅆ 이 실제로 존재했다. (X) → ㅃ(순경음비읍)은 세종 당대와 세조 초에 쓰이다가(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15세기 중후반에 소멸, ㅆ(반치음)은 16세기 후반(임진왜란)에 완전 소멸함.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X) →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은 이미 15세기에도 구별되어 있었다. <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에서 판정 의문문은 '-아/-어'의 형태를 사용하였고 설명 의문문은 '-오'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 정답: ②

◆ 다음 밑줄 친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서울7 A책)

형 문17)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닦하랴. 주렴 밖에 ㉠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 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

- 조지훈, 「낙화」(1946)

- ①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을 뜻한다.
- ② ㉡귀촉도: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 ③ ㉢우련: 갑자기, 불쑥 나타남을 뜻한다.
- ④ ㉣저허하노니: 두려워하노니

- ①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을 뜻한다. (O)
 ◆ 성기다: 물건의 사이가 뜨다. / 반복되는 횟수나 도수(度數)가 뜨다. / 관계가 깊지 않고 서먹하다.
 - ② ㉡귀촉도: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O)
 ◆ 귀촉도: 두견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꽂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 ③ ㉢우련: 갑자기, 불쑥 나타남을 뜻한다. (X) → **형태가 약간 나타나 보일 정도로 희미함.**
 ◎**영보이 암기tip**) 둥글레차를 진하게 우렸더니 컵에 든 물체가 희미하고 우련하다
 < 진하게 **우렸더니** - **희미하고 우련하다.** >
 - ④ ㉣저허하노니: 두려워하노니 (O)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O)
 ◎**영보이 암기tip**) **저 ~~~ 어 ~~~, 저~~~ 어~~~. 너 왜 그래? 염려되고 두려워서** πππ
- 정답: ③

◆ 다음 중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2017서울시7 A책형 문18)

- ① 同病相憐 - 兩寡分悲
- ② 口如懸河 - 口尚乳臭
- ③ 衣錦夜行 - 夜行被繡
- ④ 望雲之情 - 白雲孤飛

◆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7 A책형 문18)

① 同病相憐 - 兩寡分悲

1)同病相憐(동병상련): 同(한가지 동) 病(병 병) 相(서로 상) 憐(불쌍히 여길 련(연)) (O)

a)의미: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2)兩寡分悲(양과분비): 兩(두 양(량), 냥 양(냥)) 寡(적을 과) 分(나눌 분) 悲(슬플 비)

a)의미: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

* 다른 유의어 < 동기상구, 동성상응, 동주상구, 유유상종, 초록동색 >

1)同氣相求(동기상구): 同(한가지 동) 氣(기운 기) 相(서로 상) 求(구할 구)

a)의미: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2)同聲相應(동성상응): 同(한가지 동) 聲(소리 성) 相(서로 상) 應(응할 응)

a)의미: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3)同舟相救(동주상구): 同(한가지 동) 舟(배 주) 相(서로 상) 救(구원할 구)

a)의미: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같은 운명이나 처지에 놓이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돕게 됨을 이르는 말.

4)類類相從(유유상종): 類(무리 유(류)) 類(무리 유(류)) 相(서로 상) 從(좃을 종)

a)의미: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5)草綠同色(초록동색): 草(풀 초) 綠(푸를 록(녹)) 同(한가지 동) 色(빛 색)

a)의미: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란 의미로 비슷한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은 서로 어울린다는 말.

② 口如懸河 - 口尚乳臭 (X)

1)口如懸河(구여현하): 口(입 구) 如(같을 여) 懸(달 현) 河(물 하)

a)의미: '입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말을 거침없이 잘함'을 가리킨다.

2)口尚乳臭(구상유취): 口(입 구) 尚(오히려 상) 乳(젖 유) 臭(냄새 취, 맡을 후).

a)의미: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1)黃口乳臭(황구유취): 黃(누를 황) 口(입 구) 乳(젖 유) 臭(냄새 취, 맡을 후).

a)의미: 젖내 나는 어린아이같이 어려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어리고 하잘 것없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 헛갈리는 한자어

1)嗅覺(후각): 嗅(맡을 후) 覺(깨달을 각, 깰 교) / a)의미: 냄새를 맡는 감각(感覺).

b)냄새를 맡는 감각인 嗅覺(후각)은 嗅(맡을 후)를 쓰는데, 嗅(맡을 후)에는 '口(입 구)'가 들어간다.

③ 衣錦夜行 - 夜行被繡

1)衣錦夜行(의금야행): 衣(옷 의) 錦(비단 금) 夜(밤 야) 行(다닐 행, 향렬 향)

a)의미: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모처럼 성공하였으나 남에게 알려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2)夜行被繡(야행피수): 夜(밤 야) 行(다닐 행, 향렬 향) 被(입을 피) 繡(수놓을 수)

a)의미: 수놓은 좋은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공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아무 보람도 없음을 이르는 말.

* 다른 유의어 < 금의야행, 수의야행 >

1)錦衣夜行(금의야행): 錦(비단 금) 衣(옷 의) 夜(밤 야) 行(다닐 행, 향렬 향)

a)의미: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을 함을 이르는 말.

2)繡衣夜行(수의야행): 繡(수놓을 수) 衣(옷 의) 夜(밤 야) 行(다닐 행, 향렬 향)

a)의미: 수의를 입고 밤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남에게 알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

* 반의어 < 금의환향 >

1)錦衣還鄉(금의환향): 錦(비단 금) 衣(옷 의) 還(돌아올 환, 돌 선) 鄉(시골 향)

a)의미: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금의환향'의 유의어 < 금의주행, 의금귀향, 의금지영 >

1)錦衣晝行(금의주행): 錦(비단 금) 衣(옷 의) 晝(낮 주) 行(다닐 행, 향렬 향)

a)의미: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의금귀향(衣錦歸鄉): 衣(옷 의) 錦(비단 금) 歸(돌아갈 귀) 鄉(시골 향)

a)의미: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의금지영(衣錦之榮): 衣(옷 의) 錦(비단 금) 之(갈 지) 榮(영화 영/꽃 영)

a)의미: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望雲之情 - 白雲孤飛

1)望雲之情(망운지정): 望(바랄 망) 雲(구름 운) 之(갈 지) 情(뜻 정).

a)의미: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2)白雲孤飛(백운고비): 白(흰 백) 雲(구름 운) 孤(외로울 고) 飛(날 비).

a)의미: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정답: ②

◆ 다음 중 '雲從龍風從虎'라는 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2017서울시7 A책형 문19)

-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②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③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 ④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 정답 및 해설 (2017서울시7 A책형 문19)

◆ 雲從龍風從虎(운종룡풍종호): 雲(구름 운) 從(좃을 종) 龍(용 룡) 風(바람 풍) 從(좃을 종) 虎(범 호)

1)의미: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는 뜻으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 끼리 서로 좃음을 이르는 말.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O) -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구름 갈 제 비가 간다·바늘 가는 데 실 가고 바람 가는 데 구름 간다·바늘 따라 실 간다·바람 간 데 범 간다·봉 가는 데 황 간다·실 가는 데 바늘도 간다. >

②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온갖 곳을 다 다녔다는 말.

③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 바람이 부는 형세에 따라 돛을 단다는 뜻으로, 세상 형편 돌아가는 대로 따르고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바람 부는 대로 살다. >

④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 일정한 징조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①

◆ 다음 지문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서울7 A책형 문20)

변증술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논파하려 드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에서 하나의 주장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요령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시도를 했다.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설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냥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언어적으로는 결국 주어는 같고 술어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제에 의해 반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방의 요령을 정리했다. 그때 그가 유형 구별의 일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ti)’, ‘어떤지(poion)’, ‘얼마인지(poson)’, ‘언제(pote)’, ‘어디서(pou)’ 등과 같은 의문사였다. 이런 의문사는 요구되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아주 작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새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답은 그저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반면 종달새라고 답을 했다면 그 답은 틀리기는 해도 동문서답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진위를 판가름을 하기 위한 시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작다는 답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답을 하는 쪽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의문사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곧 진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

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일차적인 표지는 의문사이다.

- ②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 ③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 ④ 의문사는 답의 범위를 정해주지만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 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일차적인 표지는 의문사이다. (O)
- ◆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방의 요령을 정리했다. 그때 그가 유형 구별의 일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ti)’, ‘어떤지(poion)’, ‘얼마인지(poson)’, ‘언제(pote)’, ‘어디서(pou)’ 등과 같은 **의문사**였다.’로 보아 옳은 지문이다.
- ②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X) →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설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냥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로 보아 다른 명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이어야 한다.
- ③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X) → ‘가령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아주 작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새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답은 그저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로 보아 색깔을 물었는데 종류에 대해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이라 할 수 있다.
- ④ 의문사는 답의 범위를 정해주지만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X) → ‘의문사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곧 진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로 보아 의문사는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 정답: ①

- 영보이 저서 -

- ◆ 2018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 201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8/18 출간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블로그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